

“중년 직장인 치열한 삶 미치지 않고선 못 버텨”

여성 임원 꿈꾸는 40대 팀장 역할
직장서 버티는게 이렇게 힘들줄은
현대인들 도전하는 삶 응원하고파



“‘버티는’ 것이 이렇게 스펙터클할 줄 몰랐어요.”

배우 문소리(47)는 2000년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으로 데뷔한 이후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40여 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조연으로 활약했고, 2015년 딸의 이름을 딴 영화사 연두를 설립해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를 연출했다. 1월 개봉한 영화 ‘세자매’로는 프로듀서로서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인 이야기”

무대와 방식은 다르지만, 캐릭터로서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려는 행보만은 한결같다. 3년 만에 내놓는 장편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다. 23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MBC 수목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에서 사내 최초의 여성 임원을 꿈꾸는 40대 여성 인사팀장 당사영 역을 맡아 “밀려나지 않기 위해 인간됨을 쓰는” 중년 직장인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린다. “신입들의 적응기가 아닌, 이미 적응을 끝낸 부·과장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오피스 드라마와 사뭇 다르다고도 덧붙였다.

첫 방송을 앞두고 이날 오후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문소리는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중년 직장인들이 이렇

게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허를 내들었다. 이어 “월급도 많이 받고, 재테크도 잘 해서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줄로만 알았던 이들의 버티기는 과정이 스펙터클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 “한 번쯤 미쳐봅시다”

3월 중순부터 실제 모습을 방불케 하는 경남 창원외의 커다란 세트에서 촬영하며 회사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가고 있다. 그는 “회사 전체를 그리는 드라마여서 그 어느 때보다 동료들과 만드는 하모니와 앙상블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 정재영과 파트너 호흡을 맞추고 있고, 안내상·박원상·차정화 등 베테랑들과도 색다른 재미를 자아낼 기세다. 창원 지역 오디션으로 뽑은 연기자들도 직원으로 출연해 현장감을 살린다.

비록 회사 생활 경험은 없지만 “환경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모습”에 극중 당사영과 엇비슷한 나이인 문소리는 “깊게 공감 중”이다. 드라마를 통해 “먹고사는 게 힘든 현대인들”과 “남들이 뭐라던 곳까지 도전하는 삶”을 응원하고 싶다며 웃었다.

“저도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었던 일을 저질러 여기까지 왔어요, 연기 전공도 아니고, 외모도 ‘와, 배우다’ 싶지도 않은데 혼자서 ‘박하사탕’ 오디션을 보러 갔고요, 감독(장준환)과 결혼한 것도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네 인생사의 커다란 가닥은 모두 한 번쯤 미쳐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사랑에 미치고, 연기에 미치고,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배우 문소리가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MBC 새 수목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 | MBC

악녀? 개성 강한 ‘센 캐릭터’라 불려주오

‘펜트3’ 김소연·유진 등 매운맛 연기
‘마인’ 이보영·김서형도 강렬한 인상

더 이상 ‘악녀’라 불리지 않는다. 갖은 악행을 일삼거나 선한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부러 위악의 행위를 벌여가는 캐릭터가 아니다. 강한 개성의 생명력으로 시청자 공감과 재미를 자아내는 캐릭터, 이른바 ‘센캐’(센 캐릭터)가 안방극장에 붐을 터지듯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펜트하우스3’를 비롯해 KBS 2TV 일일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 tvN ‘마인’ 등이 그 무대가 되고 있다.

‘펜트하우스’는 시청자 관심과 시선에 힘입어 3편까지 이어가며 시리즈로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주역은 단연 김소연, 이시아, 유진 등 여주인공 캐릭터가 꼽

힌다. 일그러진 욕망에 휩싸여 잇단 복수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며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의 극중 캐릭터는 기존의 진부한 ‘악녀’의 이미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뚜렷한 생명력을 부여한 면모로도 비친다.

‘미스 몬테크리스토’의 주연 이소연과 tvN ‘마인’의 이보영과 김서형 등도 ‘센캐’로 불린다. 이소연은 선하게 살아가던 자신과 가족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재벌가를 향해 복수에 나선다. 이보영과 김서형은 재벌가 며느리들로 환경에 주눅 들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가며 결코 드러내지 않는 욕망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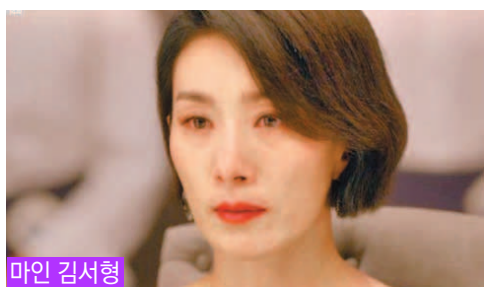
이 같은 ‘센캐’는 연기자들에게는 새로운 변신의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이소연은 “연기자로서 복수의 이야기를 그리는 데 힘겨

움이 많다”면서도 “그동안 편하게 연기해왔다. 이제 연기 변신을 하고 싶어 (미스 몬테크리스토를)선택했다”고 말했다. ‘펜트하우스3’의 유진도 “연기자로서 처음 해보는 새로운 캐릭터였다.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시리즈를 이어가는 계기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욱 확실한 콘셉트로 승부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각인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펜트하우스3’의 김소연은 “악행과 화려함을 부활시키고 좀 더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시즌의 성격에 더해 매운맛을 보여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다만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로 시청자에 소구하려 비현실적인 설정과 전개로 ‘막장’이라 비난 받는 경우도 일부 없지 않다. 한 드라마 제작관계자는 “시청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개연성 있는 캐릭터도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연기자들의 연기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멈췄던 영화 제작 현장, 다시 움직인다

송중기 주연작 ‘보고타’ 촬영 재개
영화계, 코로나19 극복 의지 높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멈췄던 영화 제작 현장이 서서히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특히 해외 로케이션을 통해 이야기뿐 아니라 스펙터클함에도 초점을 맞추는 작품들이 전열을 재정비해 새롭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송중기·이희준이 주연하는 ‘보고타’의 제작사 영화사 수박은 “21일 촬영을 재개했

다”고 23일 밝혔다. 콜롬비아 보고타로 날아간 한국 청년들의 성공을 향한 고군분투와 욕망을 그리는 영화는 당초 지난해 1월 현지 로케이션의 샷을 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3월 촬영을 중단하고 출연진과 제작진이 귀국한 뒤 작업을 멈춰야 했다. 영화사 수박은 “기존 촬영 분량을 토대로 전체 프로덕션을 재정비해 3개월여 동안 국내에서 촬영을 끝낼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로케이션을 계획했던 마동석 주



영화 ‘보고타’

연 ‘범피도시2’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현지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지난해 5월 중단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작업을 재개했다. 2월 제작진이 베트남에서 카메라에 담아온 분량에 국내 세트 촬영과 CG(컴퓨터 그래픽) 등을 엮어 새롭게 작업을 이어가

15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황정민과 현빈이 나선 ‘교섭’ 역시 지난해 7월 한국의 감염병 방역에 대한 요르단 측의 신뢰에 힘입어 현지 로케이션을 마쳤다. 뒤이어 국내 촬영까지 끝내면서 개봉 일정만 기다리고 있다.

국내에서 촬영을 이어가는 영화도 적지 않다. 23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촬영을 시작한 영화는 19편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영화계의 노력과 의지를 방증하는 셈이다. 영화사 수박이 “방역 지침을 준수해 출연진과 스태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다짐한 이유이다.

윤여수 기자

연예뉴스 HOT 5

이지훈, 9월 14세 연하 일본인 여성과 결혼



이지훈

가수 겸 배우 이지훈(42)이 9월27일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다. 23일 주피터엔터테인먼트는 “이지훈이 일본 국적의 14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본을 오갈 수 없고, 서로에 대한 확신과 굳은 믿음으로 최근 혼인신고를 먼저 마쳤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배우 유다인(37)도 결혼 소식을 알렸다. 유다인은 소속사 프레인TPO를 통해 “민용근 감독과 가을 결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영화 ‘해화, 동’의 주연배우와 감독으로 만나 사랑을 키워오다 부부의 연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블리즈 서지수, 코로나 양성…멤버들은 음성



서지수

8인조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일 소속사 올림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지수는 21일 오후 주변 관계자가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고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해 22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멤버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7월4일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이에 멤버 이미주는 이날 출연기로 했던 SBS 파워FM ‘두시탈출 쿼트쇼’에 나서지 못했으며, 케이는 주인공으로 출연 중인 뮤지컬 ‘태양의 노래’ 무대에 당분간 오르지 않을 예정이다.

BTS ‘버터’ 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 3관왕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베스트 앨범과 신곡 ‘버터’로 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 3관왕에 올랐다. 23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이 이 16일 발매한 일본 베스트 앨범 ‘BTS, THE BEST’(THE BEST)로 14~20일을 집계 기간으로 하는 오리콘 최신 차트에서 ‘주간 디지털 앨범’·‘주간 스트리밍’·‘주간 앨범’ 등 3개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주간 음악 랭킹 3개 부문에서 1위를 휩쓴 것은 오피셜히게단디즈, 킹 누 등 현지 가수들에 이어 오리콘 사상 네 번째다. 방탄소년단은 다음달 9일 ‘버터’와 신곡이 수록된 싱글 CD 발매를 앞두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하정우 정식 재판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전날 하정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27일 하정우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하정우는 “얼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 도중 시술을 받았다. 안일한 판단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낸 리지, 검찰에 불구속 송치



리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박수영)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리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리지는 지난달 18일 밤 10시12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지는 사고 직후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